

## 연구논문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가 취업, 보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Government Official Recruitment Exams.

김태일\*\*

Taeil Kim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가 그들의 취업 및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는 대학재학기간을 다소 연장시킨다. ②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는 취업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③ 민간기업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은 보수에 다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④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민간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공공부문에 취업한 경우 및 처음부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비하여 직업만족도가 낮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의 공무원시험 준비에 대해 주변에서 갖는 일반적인 우려와 부합한다. 그러나 그 크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것보다는 작음을 보여 준다.

**주제어:** 공무원시험, 대학생의 취업준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government official recruitment exams on their employment and job characteristics. To this end,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data were us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①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the exams extend their college enrollment period; ②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the exams delay their employment; ③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the exams lower their wages and job satisfactions if they are employed in private sectors.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심포지엄과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발전시킨 것이다.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태일.

E-mail: tikim@korea.ac.kr

In general,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common concerns. However, the sizes of the effects are less than common concerns.

**Key words:** government official recruitment, college students employment,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I. 서론

청년 실업의 심화와 고학력자 증가가 맞물리면서 공무원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표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어서, 대졸 청년층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직종이다(정연순 2010). 예를 들어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 준비 영역 중 공무원의 비율은 34.4%로 1위이다. 2009년도 서울시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쟁률은 154.1:1이었으며, 응시자의 대다수는 대졸 이상의 학력자였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 상당수는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며, 재학 중에 혹은 졸업 후에도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sup>1)</sup> 그런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공직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에 비하여 실제 채용되는 인원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결국 민간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이처럼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공무원시험 준비를 했던 것이 민간기업 취업에 더 유리할까 아니면 불리할까?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민간기업에 취직한 경우, 애초의 목표대로 공공부문에 취업한 경우나 혹은 처음부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비하여 직업만족도가 어떻게 다를까? 본 연구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1) 2000년대 들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1980년대에 비해 거의 3배 가량 높아졌으며, 합격자의 학력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대학재학 또는 대학졸업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아져 고학력 청년층이 급증한 결과 민간 노동시장에서 본인의 학력 수준에 부응하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당수 대졸자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오호영 2006).

공무원시험 준비를 했던 것이 민간기업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공무원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을 분석하는 것에 해당한다. 공무원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민간기업 취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공무원시험 준비가 민간기업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경우는 몇 가지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우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민간기업에의 취업 준비를 하지 못 하는 경우이다. 이는 공무원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이 민간기업 취업 준비인 경우이다. 입직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에 상이하다면 공무원시험 준비는 민간기업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민간기업 취업 준비에는 민간기업 입사 시험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점이나 대학생 시절의 동아리 활동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민간기업 입직에는 시험 점수 이외에 대학교 학점이나 다양한 활동 경력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민간기업 취업 시기를 늦추는 경우이다.<sup>2)</sup> 이 경우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하여 민간기업 입사가 늦어질 것이며, 너무 늦춘 경우는 민간기업 입사를 위한 적정 연령대를 넘겨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공무원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에 민간기업 취업 연기가 포함되는 경우이다.

공무원시험 준비가 민간기업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이는 공무원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외의 것에 해당하며, 공무원시험 준비를 통하여 축적한 지식이나 능력 등이 민간기업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경우에 가능하다. 공무원시험 준비는 대학교 초년생일 때부터 하는 경우도 많지만, 민간기업 입사 준비는 졸업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격적인 민간기업 입사 준비를 하기 이전 시기의 공무원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은 친구들과 노는 것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등이 대부분일 수 있다. 공무원시험 준비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이 민간기업 입직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일찍부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민간기업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권혜자(2010)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학력 청년들은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 기대 수준을 낮추어 취업을 시도하기보다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취업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처럼 다른 곳의 취업을 미루고 취업 준비를 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공무원이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판단하면 공무원시험 준비는 민간기업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반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민간기업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얼마나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지 등등 구체적인 영향의 수준과 내용은 알지 못하며, 이들은 실증분석에 의해서만 규명될 수 있다.

다수의 젊은이들이 장기간 공무원시험 준비에 몰두함으로써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팽배하며,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석을 실시하려고 한다.

첫째,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의 대학재학기간을 비교한다.

둘째,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의 취업률을 비교한다.

셋째,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 취업자의 보수 수준을 비교한다.

넷째,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 취업자의 직장 만족도를 비교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절의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해 설명하며,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끝으로 4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 II. 분석자료와 기술통계

###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자료를 사용한다. 이 조사는 교육과 노동시장 간에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년제와 4년제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직장경험, 직업훈련 등에 대해 매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이 조사는 2006년부터 시작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10월~12월에 실시한 1차년도 조사자료를 사용한다. 이 1차년도 조사는 2004년 8월과 2005년 2월에 졸업한 2년제 및 4년제 대학졸업자 약 50만 명 중 대략 5%에 해당하는 25,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및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2004년 8월 졸업자인 경우는 대략 졸업 이후 2년 3개월 정도, 2005년 2월 졸업자인 경우 졸업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전문대학과 교육대학을 제외하고 4년제 일반 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 2. 기술통계

이하의 분석에서 ‘공무원시험’이라고 지칭할 때는 사법고시, 공무원 공채시험(행시, 외시, 기술고시, 및 7·9급 공채시험), 임용고시, 그리고 공기업 시험을 포함한다. 즉 엄격한 의미의 공무원시험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며 통상 ‘민간기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공공부문’에 입직하기 위한 시험을 지칭한다.

〈표 1〉은 표본에 포함된 대졸자 중에서 대학시절에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 표본의 31.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5.0%로서 남성의 28.5%보다 6%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공공부문 선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교직 선호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뒤에서 제시하는 〈표 3〉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표 1〉 성별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 비율

(단위: 명, %)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		전 체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여 자	2,484	35.0	7,109	100
남 자	2,512	28.5	8,801	100
전 체	4,996	31.4	15,910	100

〈표 2〉에는 대학교 전공별로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교육계열이 타계열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은 것은 임용고시 때문일 것이다. 교육계열을 제외하면 사회계열이 다소 높으며 예체능계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의약계열의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 비율이 14%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의약계열은 대체로 ‘의사’와 ‘약사’라는 고소득 전문직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본 자료의 의학계열 졸업자 중에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의사’와 ‘약사’라는 직업 경로 이외의 전공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에는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를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시험을 준비하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보면 7·9급 공무원시험 준비를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임용고시 준비를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의 경우는 임용고시 준비 경험 비율이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으며, 남성의 경우는 공기업 시험 준비 경험이 여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다. 임용고시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표 2〉 전공별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 비율

(단위: 명, %)

전공 계열		공시 준비 경험자	전 체
인문계열	빈 도	616	2,134
	비 율	28.9	100
사회계열	빈 도	1,563	4,146
	비 율	37.7	100
교육계열	빈 도	676	880
	비 율	76.8	100
공학계열	빈 도	1,213	3,364
	비 율	26.5	100
자연계열	빈 도	698	1,540
	비 율	31.2	100
의약계열	빈 도	94	551
	비 율	14.6	100
예체능계열	빈 도	136	1,154
	비 율	10.5	100
전 체	빈 도	4,996	10,914
	비 율	31.4	100

공기업 시험에서 남성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은 왜 그럴까? 관련 전공의 성별 비율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공기업은 ‘기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상경계열 등을 우선하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업무 특성 상 남성에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아니면 공기업은 다른 시험에 비하여 면접을 중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연구자의 단순한 짐작일 뿐이다.

〈표 4〉는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를 대상으로 그 동기, 즉 왜 공공부문에 입직하려고 했는가를 묻고 있다. 이를 보면 ‘직업의 안정성’이 성별을 불문하고 70% 정도로서 다른 어떤 이유보다 압도적인데 이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각각 ‘좋은 근무환경’과 ‘주위의 권유’이다. 이들의 비율이 낮은 것은 ‘직업의 안정성’이 워낙 두드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입직 희망 동기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대신에 2·3순위도 물었다면, 이들은 상당히 높은 2·3순위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3〉 준비한 공무원시험 유형 비율

(단위: 명, %)

시험 종류		여 자	남 자	전 체
행정고시	빈 도	88	112	200
	비 율	3.5	4.5	4.0
사법시험	빈 도	55	120	175
	비 율	2.2	4.8	3.5
외무고시	빈 도	8	9	17
	비 율	0.3	0.4	0.3
기술고시	빈 도	21	58	79
	비 율	0.9	2.3	1.6
7·9급 공무원시험	빈 도	1,312	1,343	2,665
	비 율	52.8	53.5	53.1
임용고시	빈 도	755	242	997
	비 율	30.4	9.6	20.0
공기업(공단, 공사) 시험	빈 도	245	628	873
	비 율	9.9	25.0	17.5
전 체	빈 도	2,484	2,512	4,996
	비 율	100	100	100

〈표 4〉 공무원시험 준비 동기

(단위: 명, %)

준비 동기		여 자	남 자	전 체
직업의 안정성	빈 도	1,711	1,746	3,457
	비 율	68.9	69.5	69.2
유리한 보수	빈 도	23	35	58
	비 율	0.9	1.4	1.2
차별없는 공정한 기회	빈 도	122	97	219
	비 율	4.9	3.9	4.4
좋은 근무환경	빈 도	146	154	300
	비 율	5.9	6.1	6.0
국가에 봉사	빈 도	24	61	85
	비 율	1.0	2.4	1.7
민간기업에 취업할 기회 부족	빈 도	28	26	54
	비 율	1.1	1.0	1.1
주위의 권유	빈 도	186	133	319
	비 율	7.5	5.3	6.4
공직의 자부심	빈 도	110	147	257
	비 율	4.4	5.9	5.1
기 타	빈 도	134	113	247
	비 율	5.4	4.5	4.9
전 체	빈 도	2,484	2,512	4,996
	비 율	100	100	100

〈표 5〉에는 공무원시험 유형별로 시험 준비기간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사법고시의 준비기간이 31개월 정도로서 가장 길며 그 다음이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로서 22개월 정도이다.<sup>3)</sup> 사시, 행시, 외시의 준비기간이 다른 시험들에 비하여 길다는 것도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들 시험은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평균 준비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시험은 합격하기 위해 장기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중도 포기자가 남성보다 많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7·9급 공무원시험과 공기업(공단, 공사) 시험의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이들 시험의

3) 원래의 자료는 공무원시험 준비의 유형을 3개까지 묻고 있다. 가령 처음에는 사법고시 준비를 하다 행정고시로 바꾸고 다시 공기업으로 바꿨다면 유형1은 사법고시, 유형2는 행정고시, 유형3은 공기업이 된다. 이 표는 이 중에서 유형1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내용 상 장기간 공부해야 할 만큼의 분량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이들 시험 준비생은 각종 고시준비생의 경우에 비하여 취업대상으로 민간기업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각종 고시의 경우는 시험의 내용과 난이도의 특성 상 민간기업과 동시에 준비하기가 어렵지만, 7·9급 공무원시험과 공기업(공단, 공사) 시험은 이런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인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표 5> 시험 종류별 준비기간

(단위: 개월, 명)

시험준비 기간		여 자	남 자	전 체
행정고시	평 균	18.2	25.1	22.0
	표준편차	14.5	18.6	17.2
	빈 도	86	109	195
사법시험	평 균	27.4	32.9	31.2
	표준편차	15.8	17.4	17.1
	빈 도	50	117	167
외무고시	평 균	11.9	28.7	20.8
	표준편차	11.2	12.5	14.4
	빈 도	8	9	17
기술고시	평 균	8.6	18.1	15.5
	표준편차	5.8	14.0	13.0
	빈 도	20	54	74
7·9급 공무원시험	평 균	12.2	13.4	12.8
	표준편차	9.5	10.0	9.8
	빈 도	1,251	1,283	2,534
임용고시	평 균	18.4	23.7	19.7
	표준편차	11.7	16.8	13.3
	빈 도	714	231	945
공기업(공단, 공사) 시험	평 균	7.3	9.6	9.0
	표준편차	7.1	9.3	8.8
	빈 도	238	619	857
전 체	평 균	14.1	15.0	14.6
	표준편차	11.1	13.2	12.2
	빈 도	2,367	2,422	4,789

### Ⅲ. 분석결과

#### 1. 공무원시험 준비 여부와 대학재학기간의 관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 준비를 위하여 휴학을 하거나 학기당 이수학점을 적게 신청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대학재학기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길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가를 알기 위하여 대학재학기간을 종속변수로 공무원시험 준비기간을 독립변수로 하고, 그밖에 다양한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대학재학기간(개월)에 대한 회귀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추정계수	P >  z
공무원시험 준비기간(개월)		0.056	0.000
나이(세)		-0.892	0.000
성별(남자=1, 여자=0)		8.183	0.000
대학교 소재지(서울=1, 기타=0)		2.564	0.000
전공계열 더미 (기준=예체능계열)	인문계열	3.695	0.000
	사회계열	3.226	0.000
	교육계열	-3.348	0.000
	공학계열	2.626	0.000
	자연계열	1.564	0.008
	의약계열	2.817	0.001
야간(야간=1, 주간=0)		-9.824	0.000
군 복무(현역)		23.413	0.000
군 복무(보충역)		20.580	0.000
상수항		71.963	0.000
$R^2$		0.44	
표본수(명)		15,902	

〈표 7〉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여부에 따른 취업자 비율 차이

(단위: 명, %)

취업 여부		있 다	없 다	전 체
취업	빈도	3,384	8,384	11,768
	비율	67.7	76.8	74.0
전체	빈도	4,996	10,914	15,910
	비율	100	100	100

〈표 6〉을 보면 공무원시험 준비기간과 대학재학기간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며, 공무원시험 준비기간이 길수록 대학재학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추정계수값 0.056은 1년 정도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면 3주 정도 재학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유의미하기는 하지만 추정계수의 크기는 작아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어렵다.

## 2. 공무원시험 준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표 7〉에는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취업자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 중의 취업자 비율은 67.7%인데 비하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 중의 취업자 비율은 76.8%로서, 시험 준비 경험 집단의 취업률이 9%p 정도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기술통계이며, 두 집단의 다양한 차이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공무원시험 준비 유무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두 집단의 다양한 특성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해야 한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는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8〉을 보면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뒤에도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집단은 아닌 집단에 비하여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는 물론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여부이지만, 대학의 전공에 따른 취업률 차이도 흥미 있는 결과이다. 이를 보면 자연계열 학생의 취업률이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인문계열 학생의 취업률이 낮다. 사회계열의 취업률이 공학계열보다 높게 나온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한편 야간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주간 대학 졸업자보다 높은 것은 야간 대학은 원래부터 직장인이 다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표 8〉 취업과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의 관계

변수명		계수값	P >  z
시험준비 경험(경험 있음 = 1, 경험 없음 = 0)		-0.270	0.000
나이(세)		0.037	0.000
성별(남자 = 1, 여자 = 0)		0.011	0.690
졸업시기(05년 졸업 = 1, 04년 졸업 = 0)		-0.074	0.023
학교 소재지(서울 = 1, 기타 = 0)		-0.088	0.000
전공계열(기준 = 인문계열)	사회계열	0.252	0.000
	교육계열	0.140	0.010
	공학계열	0.125	0.001
	자연계열	-0.112	0.005
	의약계열	0.508	0.000
	예체능계열	0.185	0.000
야간(야간 = 1, 주간 = 0)		0.228	0.000
상수항		-0.830	0.000
Pseudo $R^2$		0.03	
표본수(명)		15,902	

〈표 8〉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데 비하여 〈표 9〉는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관심 독립변수는 공무원시험 준비기간이 된다.

〈표 9〉의 결과를 보면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뒤에도 공무원시험 준비기간이 길수록 취업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의 취업률이 비경험 집단에 비하여 취업률이 낮으며, 시험준비 경험 집단 중에서도 시험준비기간이 길수록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하다. 하나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비경험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민간기업 등 타부문 입사를 위한 준비를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또 하나는 계속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의 영향이 더 큰지는 자료의 한계로 알기 어렵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표 9〉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집단의 취업 여부 회귀분석

변수명		계수값	P >  z
시험준비 기간(개월)		-0.010	0.000
나이(세)		0.034	0.000
성별(남자 = 1, 여자 = 0)		0.063	0.189
졸업시기(05년 졸업 = 1, 04년 졸업 = 0)		-0.080	0.140
학교 소재지(서울 = 1, 기타 = 0)		0.073	0.086
전공계열(기준 = 인문계열)	사회계열	0.175	0.005
	교육계열	0.279	0.000
	공학계열	0.382	0.000
	자연계열	0.142	0.047
	의약계열	0.267	0.072
	예체능계열	0.065	0.592
야간(야간 = 1, 주간 = 0)		0.072	0.395
상수항		-0.480	0.066
Pseudo $R^2$		0.02	
표본수(명)		4,994	

대졸자 직장이동 경로조사의 문항 중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 직장의 유형을 묻는 문항이 있다. 따라서 각각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의 미취업자들이 희망하는 직장 유형을 비교하면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하여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았을 가능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표 10〉을 보면 공무원시험 비경험 집단은 절반 이상이 국내 민간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회사와 연구기관 등의 민간부문을 포함하면 3/4 이상이 된다. 이에 비하여 공무원시험 경험 집단은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교직과 공기업을 포함(이는 본 연구의 ‘공무원시험’의 포괄 범위이다)하면 80% 이상이 공공부문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의 결과를 고려할 때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집단의 취업률이 비경험 집단의 취업률보다 낮은 이유는 주로,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여전히 공공부문 취업을 희망하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10〉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 미취업자의 희망직장 유형 (단위: 명, %)

희망 직장 유형		공시경험집단	공시비경험집단	전 체
민간회사/개인사업체	빈도	145	714	859
	비율	11.0	54.1	32.6
외국인 회사	빈도	19	80	99
	비율	1.4	6.1	3.8
정부투자(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빈도	135	131	266
	비율	10.3	9.9	10.1
(재단, 사단) 법인단체	빈도	17	54	71
	비율	1.3	4.1	2.7
정부기관 (공무원, 군인 등)	빈도	700	75	775
	비율	53.2	5.7	29.4
교육기관 (대학, 초·중·고 등)	빈도	278	95	373
	비율	21.1	7.2	14.2
연구기관	빈도	11	137	148
	비율	0.8	10.4	5.6
기 타	빈도	9	32	41
	비율	0.7	2.4	1.6
모름/무응답	빈도	3	1	4
	비율	0.2	0.1	0.2
전 체	빈도	1,317	1,319	2,636
	비율	100	100	100

### 3. 공무원시험 준비가 취업자의 보수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여부가 취업자의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변수로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여부를 포함한 임금 회귀모형식을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월평균보수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취업자에 대한 임금회귀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추정계수	P > t
시험준비 경험(경험있음 = 1, 경험없음 = 0)		-0.015	0.120
나이(세)		0.017	0.000
성별(남자 = 1, 여자 = 0)		0.201	0.000
대학교 소재지(서울 = 1, 기타 = 0)		0.178	0.000
대학 성적		0.034	0.000
재직기간(년)		0.035	0.000
전공계열 (기준 = 인문계열)	사회계열	0.165	0.000
	교육계열	0.152	0.000
	공학계열	0.206	0.000
	자연계열	0.041	0.014
	의약계열	0.319	0.000
	예체능계열	-0.080	0.000
야간(주간=1, 야간=0)		-0.055	0.001
상수항		4.208	0.000
$R^2$		0.27	
표본수(명)		9,532	

<표 11>을 보면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여부에 따른 보수수준 차이는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본수를 고려할 때 유의수준 0.12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단순히 이 결과만을 놓고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이 보수 수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본 자료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1개월이라도 준비한 적이 있으면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로 분류한다. 그런데 공무원시험 준비 기간이 취업이나 보수에 영향을 주려면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시험 준비를 한 경우만을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모형에서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의 취업자 중에는 공공부문 취업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취업자 중의 보수수준을 비교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두 집단의 보수수준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이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12〉 대상별 임금회귀모형의 ‘시험준비 여부’ 추정계수 결과

	모형 형태	추정계수	P >  z
1	기본 모형	-0.015	0.120
2	시험준비 6개월 이상만	-0.020	0.070
3	1 + 민간기업 취업자만	-0.052	0.000
4	2 + 민간기업 취업자만	-0.063	0.000

〈표 12〉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시험 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 것과 민간부문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 11〉의 임금회귀모형을 다시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표 11〉의 시험준비 여부의 계수값을 ‘기본모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시하였다.

우선 공무원시험 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추정하였더니 〈표 11〉의 결과(기본모형)에 비하여 추정계수값이 다소 증가하고 유의미성도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P값은 0.07로서 통상적인 유의미성 판단기준인 0.05보다는 크다. 반면에 민간부문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추정계수값과 유의미성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표 12〉의 결과를 정리하면,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집단은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준비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보수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4.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여부별 직장유형과 직업만족도

이번에는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 취업자의 직장유형과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한다.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모두 애초의 목표대로 공공부문에 취업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는 민간부문에 취업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 중에서 실제로 공공부문에 취업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공공부문에 취업한 집단과 민간부문에 취업한 집단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다를까?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명한다.

〈표 13〉에는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 취업자의 직장 유형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은 상대적으로 공공부문(공기업, 정부기관, 교육기관)에 더 많이 취업하였으며 공무원시험 준비 비경험 집단은 상대적으

로 민간부문에 더 많이 취업하였는데, 이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 내에서의 취업자 직장 분포를 보면,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 취업자 중에서도 공공부문에 취업한 비율은 절반보다 다소 작아서, 절반 이상은 민간부문에 취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무원시험 준비 비경험 집단 내에서의 취업자 직장 분포를 보면, 당연히 민간부문 취업자 비율이 압도적이다.

〈표 13〉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 취업자의 직장 유형 비교(정규직 기준)  
(단위: 명, %)

직장 유형		공시 비경험 집단	공시 경험 집단	전 체
민간회사/개인사업체	빈도	4,695	1,111	5,806
	비율	77.3	43.7	67.4
외국인 회사	빈도	299	72	371
	비율	4.9	2.8	4.3
정부투자(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빈도	208	341	549
	비율	3.4	13.4	6.4
(재단, 사단)법인단체	빈도	521	141	662
	비율	8.6	5.6	7.7
정부기관 (공무원, 군인 등)	빈도	92	505	597
	비율	1.5	19.9	6.9
교육기관 (대학, 초·중·고 등)	빈도	170	344	514
	비율	2.8	13.5	6
연구기관	빈도	24	13	37
	비율	0.4	0.5	0.4
특정회사나 사업체 소속이 아님	빈도	9	2	11
	비율	0.2	0.1	0.1
기 타	빈도	53	11	64
	비율	0.9	0.4	0.7
전 체	빈도	6,071	2,540	8,611
	비율	100	100	100

〈표 14〉 네 집단의 직업만족도 비교

		공공취업 공시생	공공취업 비공시생	민간취업 공시생	민간취업 비공시생
보 수	남 성	3.31	3.34	3.32	3.32
	여 성	3.45	3.22	2.98	3.05
고용안정성	남 성	4.33	3.89	3.71	3.70
	여 성	4.45	3.82	3.70	3.72
직무내용	남 성	3.74	3.96	3.61	3.74
	여 성	3.76	3.86	3.54	3.64
근무환경	남 성	3.67	3.60	3.55	3.65
	여 성	3.66	3.86	3.56	3.57
일하는 시간	남 성	3.67	3.57	3.34	3.24
	여 성	3.94	3.70	3.42	3.25
사회적 평판	남 성	3.77	3.79	3.55	3.63
	여 성	3.82	3.87	3.49	3.61
전반적 만족도	남 성	3.89	3.96	3.60	3.64
	여 성	3.88	3.85	3.50	3.53

이제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 중의 공공부문 취업자와 민간부문 취업자, 공무원시험 준비 비경험 집단 중의 공공부문 취업자와 민간부문 취업자 등 네 집단의 직업 만족도를 비교하기로 하자. 이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만족도는 5점척도(1점:매우 불만족, 5점:매우 만족)로 측정되었다. 전반적 만족도는 ‘현직장(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여부’라는 항목에 대한 대답으로 측정한 것이다. ‘공공취업공시생’은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 중의 공공부문 취업자를 지칭한다. 마찬가지로 ‘민간취업비공시생’은 공무원시험 준비 비경험 집단 중의 민간부문 취업자를 지칭한다.

〈표 15〉를 보면 대체로 공공부문 취업자의 만족도가 민간부문 취업자의 만족도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민간부문 취업자 중에는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하여 만족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5〉의 결과는 기술통계에 의한 분석이다. 그런데 분석의 엄밀성을 위해서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네 집단의 다양한 특성 차이를 통제한 후에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회귀분석에 의한 비교결과는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종합만족도는 〈표 14〉의 전반적 만족도에 0.4, 나머지 6개 만족도(보수, 고용안정성, 직무내용, 근무환경, 일하는 시간, 사회적 평판)에 각각 0.1씩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균한 것이다.

〈표 15〉 회귀분석에 의한 네 집단의 만족도 비교

변수명		추정계수	P >  z
취업유형*시험준비여부 집단구분	공공취업공시생	0.282	0.000
	공공취업비공시생	0.250	0.000
	민간취업비공시생	0.034	0.050
나이(세)		0.015	0.000
성별(남자 = 1, 여자 = 0)		0.037	0.029
거주지(서울 = 1, 기타 = 0)		0.045	0.002
전공계열 더미 (기준 = 인문계열)	사 회 계 열	0.003	0.885
	교 육 계 열	0.171	0.000
	공 학 계 열	0.004	0.866
	자 연 계 열	-0.039	0.157
	의 약 계 열	-0.033	0.412
	예체능계열	0.031	0.357
야간 여부(야간 = 1, 주간 = 0)		-0.047	0.061
상수항		3.074	0.000
$R^2$		0.03	
표본수(명)		8,594	

〈표 15〉의 추정결과는 〈표 14〉의 기술통계 비교결과와 유사하다. 공공부문 취업자의 만족도가 민간부문 취업자의 만족도보다 높다. 그리고 민간부문 취업자 중에는 공무원 시험 비경험자의 만족도가 경험자의 만족도에 비하여 다소 높다.

#### IV.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는 대학재학기간을 다소 연장시킨다.
- ②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는 취업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 ③ 민간기업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은 보수에 다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④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민간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공공부문에 취업한 경우 및 처음부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비하여 직업만족도가 낮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적으로는 대학생들의 공무원시험 준비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와 부합한다. 그러나 그 크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것보다는 작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외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 혹은 자기선택편의(self selection bias) 문제이다.<sup>4)</sup>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의 취업률, 보수, 직업만족도 등의 비교로부터 타당한 인과관계를 얻으려면, 두 집단의 특성 차이 중에서 취업률, 보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여부 이외에는 모두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두 집단의 특성 차이를 모두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두 집단의 능력이나 성실성 등의 차이는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통제되지 못한 특성은 분석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집단 내의 공공부문 취업자와 민간부문 취업자, 공무원시험 준비 비경험 집단 내의 공공부문 취업자와 민간부문 취업자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시험 유형별로 세분화된 분석을 하든지, 기타 다른 통제변수를 추가한다면 이 문제가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이는 비실험연구의 본질적인 한계로서, 결과해석에서 이를 감안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졸업한 지 2년 내외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졸업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의 자료가 보장된다면 공무원시험 준비가 취업 관련 다양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의 첫 해 자료를 사용하였지만, 이미 두 번째 및 세 번째 해의 자료가 조사되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보장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외변수(omitted variable)와 자기선택(self selection)의 문제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회귀분석에서 추정계수값에 편의(bias)를 일으켜 실제값과 다르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Greene(1993) 등의 Econometrics 교재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Jacobs et al.(2009)는 자기선택에 따른 편의에 대한 유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 참고문헌

- 오호영. 2006. “공무원채용시험과 대학교육.” 《직업능력개발연구》 9(1): 49-79.
- 권혜자. 2010. “청년층 일자리 변화와 연령 세대별 고용 정책.” 《2010 한국고용정보원 심포지엄 자료집: 청년층 취업 활성화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정연순. 2010. “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생의 진로 선택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3(3): 123-146.
- Greene, W. 1993. *Econometric Analysis* (2nd ed.). Macmillan.
- Jacobs, B., J. Hartog, and W. Vijverberg. 2009. “Self-selection Bias in Estimated Wage Premiums for Earnings Risk.” *Empirical Economics* 37(2): 271 - 286.

<접수 2011/2/23, 수정 2011/3/18, 게재확정 2011/3/21>

